

최장 장마·태풍·냉해에 전남 배 생산량 반토막

올해 생산량 2만7788t
지난해보다 45.1% 줄어
2012년 이후 8년만에 최저
사과도 2944t으로 46% ↓

역대급 최장장마와 세 차례 태풍의 여파로 전남 배 생산량이 반토막 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배 생산량은 2만 7788t으로, 지난해 생산량 5만5821t보다 45.1%(-2만2794t) 줄었다. 올해 전남 배 생산량은 지난 2012년(2만6801t)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배 생산량은 13만2580t으로 지난해보다

34%나 급감했다. 재배면적이 6.0% 줄기도 했지만 10a당(1000㎡) 생산량이 29.7% 감소한 결과다. 시도별 배 생산량은 충남이 4만1710t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2만7788t), 경기(2만6255t)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배'가 대표적인 전남지역 배 생산량은 그동안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충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전남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9%(-87ha) 줄었고, 10a당 생산량은 42.8%(-971kg)나 감소했다. 올해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받은 데다 올여름 장마 및 태풍 등 기상 여건도 나빠 수확량이 급감한 것이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소폭 늘었지만 생산량은 46.2%나 감소했다.

올해 전남 사과 생산량은 2944t으로, 전년보다 46.2%(-2527t) 줄었다. 전남 사과 재배면적은 0.9%(5ha) 소폭 증가했지만, 10a당 생산량은 46.6%(-458kg) 급감했다. 전국 사과 생산량도 42만2115t으로 1년 전보다 21.1%나 줄었다. 시도별 생산량은 경북이 27만 7942t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남 4만8194t, 충북 4만2477t, 전북 2만2804t, 충남 1만7147t, 강원 8215t, 전남 2944t 순이었다. 올해 전국 콩 생산량도 8만926t으로 1년 전보다 23.2% 감소했다. 관련한 정부 지원사업이 줄어들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한 여파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만4988t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북 1만4026t, 충북 1만2049t, 전남 8282t 순이었다.

전남 가을배추 생산량은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급증했다. 가을배추 전국 생산량은 133만9742t으로 지난해보다 26.4% 증가했는데, 전남지역은 37.6% 증가한 37만1543t을 기록했다. 전남에 이어서는 경북 16만8201t, 충북 16만 309t이 뒤를 따랐다. 통계청 측은 파종기 배추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가을무 생산량은 39만6605t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다. 시도별 가을무 생산량은 전북이 11만2630t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남 7만206t, 경기 6만 1246t 등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컬푸드와 금융서비스 하나로미니에서 만나요 광주비어농협, 쌍암동 개점·운영

광주비어농협은 100평 규모(250㎡) 복합형 금융서비스 점포를 광산구 쌍암동에 개점·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비어농협 첨단북부지점은 편의형 마트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점포를 내걸고 있다. 기존 임방울로지점은 이곳으로 이전했으며, 218㎡(66평) 규모 금융점포와 122㎡(37평) 크기 '하나로미니'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나로미니'에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로컬푸드를 만날 수 있는 직매장이 마련됐다. 비어농협 측은 "하나로미니는 단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편의형 마트를 통해 고객이 간편하게 주요 생필품과 지역 특산품, 농업인이 출하한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상권밀착형 금융서비스 점포"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담양 농업인 10명 중 8명 농사지을 후계자가 없다 호남통계청, 지자체 첫 실태조사

담양지역 농업인 10명 중 8명은 영농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4일 담양 농업인 1008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본현황, 소득 및 지출, 농업정책 등 4개 부문 29개 항목의 농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호남통계청은 농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 부문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했다. 작물별 재배 면적은 논벼 5651ha(판매액 464억원), 딸기 539ha(785억원), 멜론 192ha(111억원), 방울토마토 152ha(301억원)로 면적은 논벼가 6배가량 많지만, 소득은 딸기 등 주요 특산물과 비교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우는 2만6741마리를 사육하고 1만784마리를 판매, 40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농업 이외 소득은 975억원이며, 농업과 관련해 지출한 돈은 1493억원이었다. 농업에 투입된 인원은 무급가족 1.3명, 임시와 일용 65.1명, 상용 2.2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가량(77.4%)이 전업 농업인이며, 평균 종사 기간은 31.2년, 3명 중 1명 풀(32.8%)로 빛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 후계자가 있다는 농업인은 18.8%로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희망하는 농업 교육 분야는 품목별 농업 기술 전문교육(28.8%)이 가장 많았으며 39.2%가 주변 농가나 지인에게서 농업 정보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농업기술센터나 농, 축협 및 농자재 구입처는 각 29.2%와 15.6%에 그쳤다. 영농활동의 어려움으로 농업 관련 비용 인상(30.3%), 일손 부족(24.5%), 농축산물 가격하락(20.0%) 등을 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담은 농산물 꾸러미 전달 농협 전남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은 지난 24일 목포시 서산동-온금동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찾아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내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지금부터 교육까지 종합지원

내년 청년 농업인 1800명을 선발해 자금부터 교육까지 종합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대상자는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1800명이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 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5일부터 26일까지 서류평가, 3월8일-22일 면접평가를 진행한 뒤 3월 선발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한 뒤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은 42.5%(2018년)→59.3%(2019년)→65.7%(2020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본부장에 박서홍 자재부장 선임

김석기 현 본부장 상무 승진
농협은행 본부장에 이창기
38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 박서홍(55)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장이 선임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24일 내년 1월1일자 집행간부(급)와 지역(영업)본부장급 등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21면> 박 신임 본부장은 해남군 계곡면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1년 농협에 입사해 전남본부 농촌지원단장, 농정홍보실장, 목포중앙지점장, 해남군지부장 등을 거쳤다. 이창기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장은 농협은



김석기 상무 박서홍 본부장
행 전남영업본부장에 선임됐다. 강형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유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며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에는 김석찬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장이 선임됐다. 한편 김석기 현 전남본부장은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문 상무 승진이 확정됐다. 여수 출신인 김 본부장은 지난 1990년 농협에 입사해 농협순천시정출장소장, 광주조합경영검사팀장, 광주지도경제단장, 광주경제사업본부장, 농협중앙회 회원지원국장,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1997년 이후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8명 모두 농협중앙회 상무로 승진했다. 김석기 본부장과 함께 서욱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도 상호금융 부문 상무로 승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